

<참고문헌>

- 김익성(2006). “해외유통망 및 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 이현수(2006).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익성(2007).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익성(2009). “무역촉진단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박성재·이규용(2009).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분석”. 월간 노동리뷰 2009년 1월호.
- 박순찬(2009). “한국서비스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제조업 생산성”. 국제통상연구 제14권(제2호).
- 여택동·이민환(200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산업별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4권(제4호).
- 오수균(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지보 제7권(제3호).
- 이규복(2007).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제24호)
- 임성훈(2004). “동북아시아 전략적 외국인 투자마케팅”. 학현사.
- 최백렬(2004).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8권(제1호).
- Borensztein, Gregorio & Lee(1995).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5067.
- Wang, J. & Blomstrom, M.(1992).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 A Simple Model". European Economic Review 6.

충청남도 국제협력의 발전 방향

법무법인 정평: 오수용

I. 충청남도 국제협력 기본현황

1. 국제협력의 역사

- 1) 과거 - 총무과, 기획관실,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중심으로 국제교류업무가 분산 추진.

- 2) 1994년 국제통상전담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 신설한 이래 현재 투자통상실 산하의 국제협력과에서 총괄.

2. 국제협력과의 기본현황

1) 조직

- 4담당 -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중화권담당, 동아시아담당
- 3해외사무소 - 미국 LA통상사무소, 중국 상해무역관(쓰촨분소), 일본 구마모토연락관

2) 기능

국제교류 사업을 총괄, 조정, 수립, 시행, 관리, 지원하고 있음.

3. 자매·우호 협력체결 해외자치단체 현황

1) 자매결연 : 6개국 6건

(일본 구마모토현, 호주 남호주주, 중국 허베이성, 러시아 아무르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2) 우호협력 : 9개국 14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일본의 나라현, 중국의 산둥성, 상하이시, 쓰촨성, 장쑤성,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주, 베트남의 롱안성, 캄보디아의 씨엠립주, 브라질의 상파울루,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

II.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

1.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업의 추세

- 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1960년대 광역 6건, 기초 4건, 합계 10건에 불과.
- 2) 현재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64개국 879개 도시 1043건.

2.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업의 증대 원인

1) 세계화 (Globalization)

○ 세계화 이전

- 18C 중엽 이전의 농업경제 사회 : 혈연과 지연에 의해 고립된 지역사회
-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사회 : 국가라는 틀

○ 세계화의 도래

- 19C 중엽을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와 (국경이라는 전통적인 경계를 벗어난) 새로운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등장
- 1차 세계화는 1차 세계대전 (1914년)으로 붕괴. 이후 분열과 대립의 시대(2차대전과 냉전)
- 2차 세계화 : 1989년 11월 Berlin Wall의 붕괴가 그 신호탄

○ 한국의 세계화

- 1차 세계화에 대한 대응 : 쇄국과 신 사대주의(친러파, 친일파 등)
- 2차 세계화에 대한 대응 :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1990년대 초 금융시장 개방 (그 결과 국제자본의 급속도 유입 → 외채 규모 증대와 과잉 중복 투자 → 한보철강을 필두로 하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 → 외채상황이 어려움에 봉착, 외환위기)

○ 지자체의 세계화

- 충청남도는 더 이상 '한국 내에서의 충남'이 아닌 '세계 속에서의 충남'
- 위상 변화는 충청남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

2) 지방화

-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중앙집권제 하에서 지방자치는 설 자리 없었음.
-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폭증하게 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당연하고도 반가운 사실.

3.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

- 1) 충청남도는 왜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가? 그 동기와 rationale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과거에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외교를 보완내지 분담하기 위해서?
 - 지자체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해서?
 - 투자유치와 통상지원을 위한 마중물로서?
 - 충청남도 공무원의 사업, 생활과 사고의 국제화를 위해서?
 - 충청남도 도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 참고로 중앙정부의 외교의 최근 흐름을 검토

- 외교는 상호의존의 시대임을 자각하여 자국의 이익추구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국제협력의 중심 과제는 “같이 잘 먹고 사이좋게 살기”
 - 화두는 MDGs의 달성 (별첨2 참조).
- 단 국제협력의 목적과 관련하여 자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 대답이 존재.
 - 전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일본.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는 것.
 - 후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영국 등. 빈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

3)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기본이념 재정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

- Think Globally, Act Locally
 - Think Locally, Act Locally?
 - Think Locally, Act Globally?
- 호혜주의(reciprocity)의 그림자
 - 주고 받기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혹은 “Mutual backscratching”)에 대한 암울한 기억
 - “내 이익 먼저” 주의로부터 국제교류/국제협력?
 - 받기 전에 먼저 줄 것.
 -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것

III. 전략이 있는 국제 협력

1. 계획

- 1)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향후 발전 계획은 무엇인가?
- 2) 중기 정책 수립의 필요성
 - 단년사업, 이벤트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다년간 사업을 우선해야
- 국제협력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해서는 중기정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과 기본 방침, 중점과제를 좀 더 구체화
 - 3~5년 단위
 - 국내외의 정세 변화 및 충청남도의 발전을 고려

- 시행상황을 중간평가한 후 개정

○ 국제협력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해서는 또한 나라/지역
별, 분야별 협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음.

○ 중기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2. Priority

1)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정의 절차와 기준

○ 절차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1차
선정을 하고 사전교류와 의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추진.

○ 기준

충청남도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교류대상 국가와 자치단체 선
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지인관계를 통한 선정?
- 전세계 전자치 단체와 교류?
- 다양한 구성이 되도록 선정?

○ 선택과 집중

- 한정된 자원의 문제
- 다국가 다지역 선정보다 중점국가 중점지역으로 선택

과 집중해야

○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및 선진국 중심 교류

- 잇점 (1) : 선진 행정과 선진제도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잇점 (2) : 우수기술, 해외자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을 자극하여 지방경
제 활성화를 도모.
- 잇점 (3) : 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력
- 잇점 (4) : 연수 견학 시찰 등을 통해 견문 확장.

- 잇점 (5) : 방문시의 숙박과 여행의 편리함

- 잇점 (6) : 만약 사무소를 연다면 파견 시 자녀 교육의
혜택?

○ 최근 지자체의 교류 추세

- 브릭스 : 2001년 미국의 증권회사 골드먼삭스그룹 (보
고서에서는 2003년)이 국토·인구 규모로 보아 대국이
며 근년에 눈부시게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천연자원도
풍부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브라질
(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브릭스라고 지칭.
- 친디아 :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 세
계대전망”에서 브릭스 4개국 중 중국과 인도가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
- 넥스트 11 또는 넥스트 브릭스 : 2008년 도이치자산운
용그룹에서 중국시장의 거품 우려되니 중국투자 완화
주장. 브릭스 넘어 넥스트 이머징 시장으로서 이집트,
인도네시아, 터키, 나이지리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
란, 파키스탄, 베트남·카자흐스탄·멕시코 등 지목.
- BICIs : 2010년 이코노미스트지 예측. 브릭스 4개국
중 러시아 빠지고 인도네시아 추가.

○ 교류 대상 국가 및 지역 선정 기준 재정립

- 행정 : 행정 제도 수입국 (선진국) 외에 행정 제도 수
출국 (개도국)
- 서비스 : 서비스 수입국 (선진국) 외에 서비스 수출국
(개도국)
- 자원 : 자원 수입국 (자원부국) 중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 상품 : 상품 수입국과 수출국 그 각각 중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 자본 : 자본 수입국 (선진국) 외에 자본 수출국 (개도국)

- 기술 : 기술 수입국 (선진국) 외에 기술 수출국 (개도국)
- 노동력 등 : 노동력 수입국과 노동력 수출국
- 성장 잠재력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 문화 : 문화 수출국 외에 문화 수입국 혹은 상호 교류국
- 인도주의 등 :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긴급구호, 개발원조가 필요한 나라 특히 최빈국

2) 교류대상 중점 분야

○충청남도의 고유한 특색 분야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야,
- 지리적인 여건과 관련된 분야
- 기타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있는 분야

○지역이미지 상징으로 승화 가능한 분야

○보편화 가능한 분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공동관심사가 있는 분야

- 다문화 가정(베트남, 캄보디아),
- 환경(황사와 관련하여 몽골, 중국의 사막 지역)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 지역 경제에 연관 효과가 높은 분야
-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

○교류대상 국가의 needs가 있는 분야

- 사업자본(Business capital) : 농업, 공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동력 운송수단
- 인적 자본(Human capital) : 사람의 건강 영양 기술 (사람들이 경제적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 : 과학적 기술적 노하우 (물리적 자연적자본의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인프라(Infrastructure) : 도로 전력 물과 위생 공항과 해항 통신시스템 (사업의 생산성을 규정하는 필수 투입요소)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건전한 생태계와 토양, 경작 가능한 토지, 생물 다양성 (인간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
- 공공제도적 자본(Public institutional capital) : 상법 사법제도 정부서비스와 경찰 (분업이 평화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

3) [선정 사례 (추천대상)] 덴마크 재생 에너지섬 삼소도

○ 삼소도 기본 현황

- 덴마크 중앙에 위치한 인구 4,200명, 면적 114km²의 작은 섬.
- 66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섬인구의 20% 이상(덴마크 평균 13%)을 차지.
- 덴마크 평균 소득보다 20% 이상이 낮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
- 1999년 섬의 주요 산업중 하나이었던 돼지도살업의 폐쇄로 80여가구가 실직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노정

○ 1997년 덴마크 환경에너지부가 개최한 ‘재생에너지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삼소도 개발 프로젝트’가 우수작으로 채택되고, 삼소도가 재생 에너지섬으로 지정

- 10년간 삼소도 주민들의 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로 삼소도는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 에너지 자급도 실현
- 10년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
- 현재는 섬에너지 수요의 99.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삼소도 개발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아니고, 저소득저학력고령의 농민들이 대부 분인 섬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Bottom-up)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추진.

- 수차례의 주민회의를 거쳐 대부분의 섬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

생에너지 시설들에 개안공동 소유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

- 육상풍력발전터빈 11기 : 9기는 섬주민 개인 또는 공동 소유, 2기는 협동조합 소유
- 해상풍력발전터빈 10기 : 5기는 삼소도 자치정부 소유, 3기는 주민 공동 소유, 2기는 협동조합 소유
- 밀짚연소난방공장 3기 : 각각 섬주민 공동소유, 협동조합 소유, 개인회사 소유 형태
- 태양열·나무조각 연소난방공장 1기 등

○ 10년간 약 4억 크로네(약 8백억원)가 투자되었으며 이중 정부 보조금은 7.5%인 3천만 크로네(약 6십억원)에 불과

○ 삼소도를 “10년내 100% 재생에너지 자립의 섬, 100% 탄소 중립적인 섬”으로 만들겠다는 섬주민들의 비전 현실화

- 풍력발전 터빈 건설로 섬내 전력 수요 10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섬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탄소 네거티브성 달성 (1997년 연간 탄소배출량이 6만5천톤에 달하였으나, 현재 마이너스 1만 5천톤의 탄소 네거티브성으로 탈바꿈)
-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연소공장 건설로 섬 난방의 70%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도 열펌프 등 새로운 난방시스템 도입
- 유채(Canola)油를 이용하여 자동차경운기 등의 연료로 사용

○ 삼소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섬주민들의 투자 소득 증 대, 섬내 고용창출, 관광수입 증대 등 효과 창출

- 섬주민 1인당 연간 만크로네 상당(약 2백만원)의 석유 구입비 절약
- 풍력 발전터빈에 가구당 2천~4천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4백유로 상당의 가구당 투자 수익 발생
- 지역난방공장 건설·각종 개인난방 교체시 섬내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 다만, “10년내 섬주민들의 자동차 10%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한다는 수송부문의 계획은 전기자동차의 경제성 부족으로 실패

- 향후 삼소도는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유채씨유 등 바이오 연료 생산증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배출 절감에 주력 예정

3. 성과 중시 매니지먼트 (Result-based management 즉 RBM)

1) 기존의 국제협력

○ 국제협력 형태 :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는 국내의 타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교류”형.

- 지자체 간 자매결연
- 지자체 간 우호 교류협정

○ 교류사업 형태 :

- 인적교류
- 문화·스포츠교류
- 기술·학술교류
- 산업·경제교류

○ 주요 교류

- 승인전 사전 교류
-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조인식 참여
- 지자체장 취임 축하 방문
- 상대 지역의 중요행사 참여
- 우수사례 발굴견학
- 상대 지역에서 우리 자치체가 개최하는 해외 세미나, workshop 참가
- 부수적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

○ 빈도 : 연 2-4회.

○ 지속가능성

- 활발
- 지지 부진 그러다 단절, 가끔 연락 오면 당황.

2) 성과중심적 국제협력 체제 확립

- 국제협력 활동을 input, output, outcome, impact라는 로직의 흐름에서 그 실적, 결과 (output, outcome, impact)의 달성도로부터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전략.
 - 활동의 목표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
 - 설정된 지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에 따라서 평가라는 상세한 검증 작업 실시.
 -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변경된다.
- 또, RBM에서는 실적이나 결과에 관한 정보를 행정 활동의 관계자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확보.
- 평가 시스템의 구축 (별첨1 참조)
 - 국제협력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 지역주민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 투명성의 향상,
 - 평가와 제언의 정책으로의 피드백이 필요
 - 사후 평가뿐 만이 아니라 중간 평가와 사전 평가가 요구됨.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내부 평가 이외에도 외부 평가, 합동 평가, 독립 평가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
 - 국제 협력 사업의 평가 기준 항목
 - 타당성
 - 유효성
 - 효율성
 - 파급효과
 - 지속성

○ 평가결과의 활용

- 내부 관계부서간 사업교훈 공유 및 향후 업무실시에 반영하여 성과 제고에 활용
- 향후 국제협력 정책·제도·운용에 반영
- 제한적인 국제협력 역량을 감안,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방식 추구
- 국제협력의 1차 중기계획 완료시점을 목표로 평가예산, 평가인원 증대 및 평가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 ('평가인프라 확충 로드맵'을 작성)
- 초기단계에는 사업수행 부서에 평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
- 평가업무지원 및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연구기관 활용

○ 평가체계

- '평가소위원회'가 평가항목,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하고 사업의 목적·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평가지침 설정
- 동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한 후, 동 결과를 '평가소위원회'에 제출
- '평가소위원회'는 매년 부서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과제 중 특정분야(1-2개)를 선정,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
- 평가소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부지사
 - 위원(8인 정도)
 - 도청측 : 3인
 - 민간측 :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5명)

○ 평가시기 및 주기

연 1회, 2/4분기중 실시

IV. 주민참여

1. 관주도의 국제협력

1) 주민 참여 현황

- 과거의 국제교류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실행
- 오늘날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자체대 지자체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관주도의 교류가 일반적임.

2) 원인:

-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주민 발의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음.

3) 결과 :

-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로 귀결되지 않음.
- 고위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통제와 분석 없이 전시적으로 시행.

2.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국제협력.

- 1) 기관장이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 유명인사 등 소수 엘리트 중심의 연례적인 방문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야
- 2)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전환해야
- 3) 시민이 주권행사의 일환으로서 국제화의 주체로 나서고 지자체는 지원 보조역.
- 4) 대상지역의 민간단체와 충남의 민간단체, 대상지역의 시민과 충남의 시민간의 국제 교류.

3. 국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1) 민관협력체제의 개념

-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구, 지역주민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

2) 민관협력의 필요성

- 정부 또는 민간이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시 관 또는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속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기업측에서는 높은 리스크와 저수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던 프로젝트를 사업화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의 국제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의 가버년스의 선악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도를 강화하고 충남과의 교류를 풀뿌리 수준에 까지 넓고 깊게 침투시킬 수 있음.

3)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 국제화 관련 회의 또는 행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 수준을 높이고 참가 범위도 몇몇 열성적인 단체와 전문가에 한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전문가 중심의 현재의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민간 주도형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협력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민·관·산·학이 포괄된 협의체 - 주민, 민간단체, 대학 및 학술기관, 기업과 지자체(실무 담당 직원)
- 기능

- 계획 수립
- 의사결정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4) 단체장의 역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주도적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해야.

4. [사례] 전라남도의 개도국 대상 민관 협력 자원외교

1) 광역 지자체 중 최초의 자원기지 확보 사업

○ 인도네시아에 전남도 면적(122만ha)만큼 큰 115만ha 규모의 아시아 자원 기지를 구축

○ 양 지역간 교류협력과 공동 번영을 증진시키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5대 분야 자원개발에 공동 협력기로 협약.

- 해양에너지 : 우뚝가사리 생산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생산
- 농업 : 옥수수, 카사바, 팥 등 생산농장 경영
- 조림 :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조림사업
- 광물 : 광물 자원 개발사업 (니켈 등 희유광물 개발사업)
- 에너지 효율 : 기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현지 주택 개량사업)

○ 그 일환으로 술라웨시 주정부가 전남도에 양식장 100만ha를 비롯, 옥수수 팥 10만ha, 산림조림지 5만ha 등 총 115만ha를 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2) 협약에는 현지 민간기업과 금호석유화학(주)과 전남사료 등 전남도내 10개 민간기업이 직접 협약 당사자로 참여.

○ 금호석유화학(주)은 우뚝가사리 양식지 100만ha를 중부 술라웨시주에서 제공받아 연간 60만톤 이상의 바이오에탄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 술라웨시에서 생산된 우뚝가사리를 원료로 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양산기술을 개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에탄올 생산설비 투자
-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과 물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인 (주)제이앤씨미트의 노하우를 활용.

○ (주)전남사료는 인도네시아에 10만ha의 옥수수, 팥, 카사바 농경지 등 안정적인 사료작물 공급지를 확보, 저렴한 가격의 사료를 전남 농축산 기업들에게 생산·공급.

○ 한성종합조경 등이 실제적인 산림개발을 위해 5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해 탄소배출권 조림과 우드펠릿 등 녹색산업 추진.

3) 전남도와 술라웨시주의 유사점.

-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
- 높은 발전 잠재력

5. [사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1) “지역 재안형 국제협력”

○ 지방 자치체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사회가 가지는 지식이나 경험을 살린 사업을 실시.

○ 개발 도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방 자치체가 가지는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살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일본의 지역사회로의 인재의 수입이나, 현지에 있어서의 기술지도를 조합한 협력을 실시

2) 사례 - 2009년만도 29개 건

- 네팔의 지푸라기·등유대체 연료기술 지원과 보급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北海道東川町 北海道에너지보급촉진협회)
- 중국 十二德堡鄉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여성리더 육성 프로젝트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北海道帯広市 十勝인터내셔널협회)
- 스리랑카 자주방재(自主防災) 활동의 실천과 PTA에 의한 지진 스나미 피해 경감기술의 정비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宮城県 宮城県庁、東北大学대학원 공학연구과 부속 재해제어연구센터)
- 중국 잔류농약분석기술의 보급에 의한 송화강 환경보전지원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山形県 山形県환경과학 연구센터)
- 인도네시아 중산간지역의 지반(地盤) 재해 방재기술 능력개발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秋田県 秋田県、秋田대학)
- 중국 江蘇省대기환경개선지원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石川県환경정책과 石川県보건환경센터)
- 피지 수난(水難) 구조기술연수 (실시기관 또는 단체 : 松阪지구광역소방조합)
- 모로코 녹화에 의한 지속적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추진 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岐阜県)
- 미얀마 나마단 지구의 약용 란 재배 증식의 실시와 마케팅루트개발 (실시기관 또는 단체 : 高知県 高知県立牧野식물원)

- 인도네시아 마카살시 시민참가형 폐기물관리 추진사업 (실시기관 또는 단체 : 福岡県北九州市 北九州市환경국환경경제부 환경국제협력실)
- 캄보디아보편적인平和와인간 안전보장 계발 보급을 위한 인재육성 (평화박물관) (실시기관 또는 단체 : 沖縄県평화기념자료관)

V. 국제협력 인재 발굴과 양성

1. 필요성과 대상

1) 필요성

국제협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적자원 발굴 육성은 관건

2) 국제화 수준 강화의 대상

- 1차적으로는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staff
- 2차적으로는 충청남도 도청의 전 공무원과 도민 특히 미래에 국제화된 사회의 주역이 될 충청남도 청소년들.

2. 국제협력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1) 커뮤니케이션 능력

○ 어학능력

- 영어와 현지어로 업무상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하는 능력 (presentation 능력)과 전달방식의 노하우(교섭력)를 포함함.

○ 공감 능력

- 문화가 다른 상대측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2) 국제화 마인드 셋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

- 유엔이 제시한 MDGs에 대한 이해.

○ 원조 관련 지식과 경험 :

- 개도국의 빈곤, 세계 원조의 종류에 대한 지식
- 개도국에서의 봉사 활동 및 NGO 활동 경험.

○지역 관련 지식과 경험 :

- 특정국, 특정 지역의 역사 경제 법 제도 사회풍습, 문화에 관한 지식
- 특정국, 특정 지역에서의 실무 생활 경험

3. 현재의 수준

- 1) 충청남도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11매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상(3점), 중(2점), 하(1점)로 나뉘었을 때 외국어 구사 능력은 영어(1.50), 중국어 (1.44), 일본어 (1.33)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중이하의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다.

4.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 방안

1)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방안

- 충청남도 도청 내 뿐 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 기업,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외국어 학습 동아리 구성을 적극 장려하고 교재 및 강사를 제공
- 외국어 구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contest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제공을 권장
- 수험영어적 접근은 지양하고 따라서 토플, 토익 등의 성적을 연계시키는 것을 지양. 시험이나 과제가 아닌 재미와 교양으로 접근토록.
- 국제교류를 염두에 둔 상황 설정 등 실용적 외국어 학습 모델 개발.
- 영어, 일어, 중국어 이외의 보편적 언어 스페인어 불어 습득 권장.
-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의 능력 활용
 -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 문화 프로그램 개발
 -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 지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 문화 교실 설치.

2) 글로벌 마인드셋 함양

○ 세계에 대한 이해 - 상호의존과 급격한 변화

- 세계는 사회 경제 종교적 시스템(보이스카웃, 무역, 카톨릭교회), 신문과 방송, 통신(전화, 인터넷), 여행과 이민에 의해 상호연관된(interconnected) 망으로 얽혀 있음.
- 세계는 분리된 영토와 민족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interactive) 역동적인 시스템임.
-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시민 개개인 의 일상생활에서의 판단, 결정과 행동은 총체적으로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 세계관

세계관의 변화	
현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1. 자연에 대한 낮은 평가 -상품생산을 위해 인간이 자연 지배	1. 자연에 대한 높은 평가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 우선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 우선	2. 보편적 애정 -모든 종(種), 모든 민족에 대한 애정
2. 가까운 존재에 대한 애정 -다른 종(種), 민족을 악용하고 착취	-미래 세대에 대해 관심
-현 세대에 대해서만 관심	3. 통찰(insight)을 통한 위험 최소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정치 사회적 규제
3. 부의 창출을 위해서는 위험 감수 -과학 기술 우선	-연성 기술(soft technology) 개발
-경성 기술(hard technology) 강조	4. 성장에 제한 -자원은 유한함
4. 무제한적 성장 -부족함이 없음	-보존 절약이 필요함
-끝없는 소비	5. 변화된 사회가 필요함 -협력과 참여
5. 현 사회에 만족 -경쟁과 위계질서	-단순하고 숙고하는 생활양식
-복잡하고 빠른 생활양식	6. 새로운 정치 -비판적 사회운동에 종종 반대
6. 넓은 정치 -좌 우 정당의 스펙트럼	-참여 민주주의

○ Global Citizenship

지구촌 시민 (Global Citizen)이란

- 세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세계 시민 (world citizen)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으며
- 다양성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며
-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적 과제에 참여하고 그 해결에 기여하며
- 이 세계를 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 다문화 인식 (Cross-Cultural Awareness)

다문화 인식은 다음과 같이 4 레벨로 구별할 수 있다

Level	정보	상황	해석
I	피상적 혹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 고정관념	여행, 교과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민기 어려움 즉 이국적이고 기묘함
II	자국 문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문화충돌 상황	민기 어려움 즉 감당하기 어렵고 터무니없음
III	자국 문화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화적 속성에 대한 인식	지적 분석	인지과정을 통해 믿을 수 있음
IV	타국문화를 내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인식	문화적 몰입, 그 문화속에서 살기	주관적 친숙함 때문에 믿을 수 있음

○ Global Issues에 대한 이해

- 빈곤 : 외채,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물, 원조(ODA)
- 경제성장
- MDGs (별첨2 참고)
- 세계의 분쟁과 평화

5.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의 활용

1) 외부자문

2) 특채

VI. 국제 발룬티어 활동

1.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필요성

- 1) 최근의 주된 조류 - “교류”형에서 “협력”형으로.
- 2) 전시적 활동에서 벗어난 실질적 활동
- 3) 관 주도 엘리트 중심에서 민관협력체제로의 전환 모델
- 4) 충청남도의 국제협력 인재의 자질과 능력 향상과 동시에 상대국 지자체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협력 가능

2.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구조와 process

1) 수요 발굴

- 충청남도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봉사단 파견 MOU 체결
- 충청남도 도청과 상대국 지자체 간의 실무 협의
 - 수요처 : 상대국 지자체, 대학, NGO
 - 수요분야 :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환경, 건설
 - 수요인력 확정

2) 선발과 교육 훈련

- 선발 : 도청 주관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 교육 훈련 : 대학 또는 NGO에 위탁
- 훈련기간 : 1개월

3) 비용

- 한국 국제협력단에 사업 신청
- 행정 안전부에 사업 신청
- 봉사단원 일정 자비 부담

[별첨 3] 참조

[별첨 1. 국제 협력 사업의 평가체제 구축]

1. 평가의 필요성

1) 평가의 목적

- 일반적으로, 교훈을 배우는 것에 의해서 장래의 개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관리(management)의 측면과
-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이 있음.

2) 평가(evaluation)의 정의.

- 현재 실시중, 혹은 이미 종료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그 계획,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검증.
- 평가는, 종합적인 동시에 상세한 검증 작업이므로 평가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 (평가 설문 : Evaluation Questions)를 설정해 실시해야.

3) 평가 이외의 기타 개선 방법

○ 모니터링(monitoring)

실시중인 협력사업의 사업 운영 부문이나 주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목표의 진척 및 달성도, 배분된 자금의 활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의 지표에 관한 체계적으로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하는 지속적인 기능.

○ 리뷰(review)

정기적 혹은 수시로 행해지는 국제협력사업의 실적(퍼포먼스)에 대한 검증.

○감사(audit)

- 국제협력 조직 업무의 개선이나 (조직의) 가치 부가를 목적으로 하여 계획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행위.
- 리스크 관리, 통제, 조직 운영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검증, 개선하기 위한 계통적 규율을 통하여 조직이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평가의 종류

1) 타이밍별

- 사전 평가 : 국제협력 사업 실시 전에 행해지는 평가.
- 중간 평가 : 국제협력 사업 실시의 중간 단계에 행해지는 평가.
- 사후 평가 : 국제협력 사업의 종료후에 행해지는 평가.

2) 평가자별

○ 내부 평가

국제협력 사업관계자 혹은 국제협력 사업 실시 기관의 사업 운영 부문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는 부서 및(또는)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외부 평가

국제협력 사업 실시 기관 이외의 조직 및(또는)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독립 평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제협력 사업의 계획 및 실시의 책임자로부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

○ 자기 평가

국제협력 사업의 계획 및 실시 관계자에 의한 평가.

○ 합동 평가

복수의 기관 및(또는) 관계자가 참가해 실시하는 평가.

○ 참가형 평가

국제협력 사업 기관 및(수익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의 대표

가, 공동으로 평가를 계획, 실시, 해석하는 평가.

3) 대상별

○ 테마별 평가(thematic evaluation)

복수의 나라, 지역, 분야를 횡단해서 특정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실시 하는 평가.

○ 국별 프로그램 평가

대상국에 있어서 총남도가 담당하는 복수의 국제협력 사업 및 그 배경에 있는 국제협력 사업 전략의 평가.

○ 섹터 프로그램 평가(sector program evaluation)

특정한 국제협력 사업 목표의 달성에 공헌하는, 일국내 혹은 복수국에 걸치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사업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

○ 프로젝트 평가

개개의 국제협력 사업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며, 일정한 자원과 실시 기간 내에, 또, 때때로, 보다 광범위하게 미치는 프로그램의 범위내에 있어서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

4) 기능별

○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

- 실적(퍼포먼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
- 대부분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실시 단계에서 행해

짐.

○프로세스 평가(process evaluation)

- 실시 기관 내부의 상황, 정책 수단, 서비스 제공의 메

카니즘, 사업 실시 방법, 또 이러한 제휴 상황의 평가.

○총괄 평가(summative evaluation)

-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의 단계 혹은 종료시에, 당초 전망된 outcome(성과)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 총괄 평가는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평가의 기준

계획,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1) 타당성(Relevance)

국제협력 사업의 목표가 수익자의 요망, 대상국의 요구, 지구 규모의 우선 과제 및 국제협력 사업 관계자와 충남도청의 정책과 정합하고 있는 정도.

2) 유효성(Effectiveness)

국제협력 사업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혹은 달성될 것이 전망되는 정도이고 목표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감안하면서 판단한다.

3) 효율성(Efficiency)

자원 및(또는) input(투입) (자금, 전문 기술(지식), 시간 등)이 얼마나 경제 적으로 결과를 낳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4) 임팩트(Impact)

국제협력 사업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불문 하고 생기는 긍정적, 부정적 및 일차적, 이차적인 장기적 효과.

5) 지속성(자립 발전성)(Sustainability)

- 국제협력 사업 종료 후에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립적 편익의 지속 성.
- 장기적 편익이 계속될 개연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의 순익이 없어져 갈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

4. 분석 방법.

1)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

국제협력 사업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분석 또는 추정.

- 국제협력 사업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검사,

-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및

- 명확한 리스크에 관해, 그것이 생기는 확률 및 예상되는 임팩트를 정량화하는 프로세스.

2) 사례 연구(case study)

어느 특성의 집단에 대해서, 면접법 또는 관찰법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케이스를 겹쳐 쌓는 것에 의해서 일반적 특징으로서의 원리를 개발하는 연구 방법 .

3)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시책 등의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을 추정 또는 추측하고 이것을 화폐 가치로 표시해서 그 비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시책등을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요인으로 하는 수법.

4) 비용 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시책 등의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일 없이 비교하는 수법.

5) 산업연관 분석(input- output analysis)

투입- 산출 분석, 타부문 분석이라고도 함.

경제 체계를 재화와 서비스를 비결합 생산하는 산업 부문 및 가계 등 최종부문으로 나누어 소비의 최종수요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균형 산출량을 요구하는 것.

[별첨 2.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약칭 MDGs)]

1. 8가지 Goals

1) 빈곤 감소

새천년 개발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 선진국에 살고 있는 10억인이 세계의 총소득의 4/5 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1990년 현재 저소득국과 중간 소득국에 살고 있는 10억인(전 세계 인구의 대략 28퍼센트)은 하루에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생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수품 예컨대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음.

○ MDG의 첫 번째 목표는 2015년 까지 이 수치를 14퍼센트로 줄여서 5억인의 인구를 절대 빈곤(extreme poverty)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 비록 이것이 빈곤의 근절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인이 먹고 입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갖추는 단계로의 일보전진.

2)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을

새천년 개발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빈곤과 교육

- 교육은 빈곤, 질병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
-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커다란 발언권을 제공.
- 교육 없이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있을 수 없음.

○ 1990년에 대부분의 나라는 2000년 까지 모든 어린이의 초등교육 달성을 약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음.

- 여전히 1억 4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은 개도국의 어린이들이며 57 퍼센트는 여자 어린이

○ 2015년 까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등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할 것을 정부가 보증해야 함.

○ 현재 155개 개도국 중에서 37개국만이 보편적 초등교육 수료를 달성

3)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새천년 개발목표 3: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능력 고양 Target (세부목표) :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2015년까지는 모든 수 준의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앴

○ 빈곤과 여성

-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차별.
-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장애물이 있음.

○ 성적 불평등

- 부모들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전히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 유아의 생존율이 낮음.
- 많은 나라들 특히 저소득국에서는 차별 또는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학교 중퇴율이 더 높고 학력수준도 더 낮음.
-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잡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더 어려움.

○ 여성들의 더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좀 더 커다란 역할을 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음.

4) 아동 사망률 감소

새천년 개발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5세미만 아동 사망률 2/3 감소
--

○ 아동 사망의 실태

- 전 세계적으로 1천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

전에 죽고 있고 그 대부분은 개도국 아동.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5세 이전에 사망.

-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 위생, 좋은 식사, 보건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음.

○ 아동 사망률 감소 방안

- 전 세계의 자원을 좀 더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 적절한 보건과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 또한 홍역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

○ 방안의 실효성

- 세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
- 단지 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가능.

5) 산모의 건강과 안전

새천년 개발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Target (세부목표) :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3/4 감소

○ 모성 보건 문제의 심각함

-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성 (그 대부분은 개도국 여성)이 임신 중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사망하는 아이는 3백만명
- 영국에서는 5,800명 중 1명의 여성이 임신 혹은 출산 과정에서 병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데 비해 에티오피아에서는 14명중 1명의 여성이 이러한 이유로 사망.

선진국에서 평균 산모 사망율이 100,000명 출산당 21인데 비하여 부룬디, 차드, 에디오피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에서는 1,500명 이상 사망.

○ 모성 보건 문제의 중요성

-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기대해야 할 일이지 엄마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건이어서는 안됨. 기본적 인간 생명에서의 이러한 중대한 불평등을 하루 빨리 종식해야.

○ 모성 보건 증진 방안

-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
- 산모가 적절한 보건과 기본적인 의약품의 혜택을 받을 수 만 있다면 그 들은 생존하여 자기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음.
- 보건과 가족계획, 피임과 적절한 교육은 산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수단

6) 전염병 퇴치

<p>새천년 개발목표 6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저지 및 반전(反轉)</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반 전</p>

○ 전염병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

- 2003년에 3600만명의 성인과 2백만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그들 중의 98 퍼센트 이상이 개도국 사람.

- HIV/AIDS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빈곤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한 질병은 인간의 생명을 대규모로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 2015년 까지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반전시키는 것은 지구촌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 전염병 퇴치 방안

-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와 적절한 치료, 적절한 의약품이 필요. 그러나 2003년에 HIV 치료가 필요한 5내지 6백만 명 중에서 단지 7 % 만이 그 혜택을 받음.
- 의약품 외에도 교육도 병의 전파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
- 말라리아를 막기 위해 해충약 처리를 한 모기장을 공급하는 것도 실질적인 해법.

7) 깨끗한 환경

<p>새천년 개발목표 7 :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p> <p>Target (세부목표)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손실을 반전(反轉)</p> <p>Target (세부목표)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p> <p>Target (세부목표) :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럼거주자의 생활여건의 획기적인 개선</p>
--

○환경에 대한 미증유의 위협.

- 기술과 교통의 발전에 결부된 인간 활동은 종종 산림

을 파괴하고 동물을 멸종시키며 오염을 증대.

- 천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나 특히 빈곤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 더 피해가 큼.

○ 경제발전과 환경, 연대

- 경제발전과 깨끗한 환경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때때로 어려운 선택을 하여야.
- 신흥 개도국 예컨대 인도와 중국 등이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 만약 부가 환경 훼손의 결과 생겨난다면 우리는 바로 부의 원천자원을 파괴하게 될 것임.
- 모든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필요가 있음.

○ 슬럼거주자의 생활여건

- 현재 세계 인구의 1/3이 도시 슬럼가나 shanty towns에 거주.
- 개도국의 많은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성장을 계획할 자원이 없음.

8)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의 공유

새천년 개발목표 8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Target : 보다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의 발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선정(good governance), 개발 및 빈곤완화의 책임 포함.

Target : 최빈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역점 지원

최빈국 수출에 대해 관세 및 쿼터 완전 면제, 과도채무빈국(HIPCs)들을 위해 개선된 부채탕감 프로그램 및 양자간 공적부채 탕감, 빈곤완

화에 매진하는 국가에 대해 ODA 증액 지원.

Target : 내륙개도국과 군소도서 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역점 지원.

Target :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 (장기적으로 상환가능한 부채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적 수단을 통해 해결)

Target : 개도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해 적정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이행.

Target :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들이 필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Target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

- 여덟 번째 목표는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보완.
- 개도국들이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발전의 방향을 잡고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여덟 번째 목표는 이러한 개발을 돕기 위해 세계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

○ 구체적인 방안

- 무역이 개도국에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공정하고 개도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세계 무역 시스템과 룰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의 필요 : 원조는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해야하고 원조 수혜국이 적절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다년 원조여야.
- 부유한 국가들이 또 다른 도움 방식은 개도국의 빈곤

을 탕감하는 것. 이것은 부유한 국가들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님.

2.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척상황

- 1) 2015년 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의 새천년 개발목표의 진척도는 매년 측정되고 있음.
- 처음 7개의 목표는 그 목표 달성 또는 개선여부를 확인할 책무를 개도국 정부에 지우고 있음.
- 여덟 번째 목표는 나머지 일곱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어느 조치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원조를 제공하고, 무역의 룰과 관행을 개선하며 부채를 탕감할 책임을 부유한 국가와 지구촌 사회에 요구하고 있음.

2)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 현재의 진척 상태로 본 다면 목표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의 해외원조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바가 여전히 많고 부채탕감을 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한 무역의 룰과 관행은 여전히 약속의 반복으로만 끝나고 있음.

3)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한 배증의 노력

- 개발도상국 지원은, 100년에서 500년에 걸친 빈곤의 역사와 근원을 생각한다면, 개발이 뒤떨어진 빈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문제일 수 없음.
-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총회에서는, “빈곤은 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을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고, 인류의 ‘책무·의무’의 문제가 되었다“ 라고 선언.
- 따라서 그 달성을 위해 전 지구촌 사회의 노력 증진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해야.

3.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한국의 기여

1) 한국의 책무

- 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경제 및 무역 규모면에서 세계 10위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과거 전후복구와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과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에 힘입은 바에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2002년 현재 66.0%) 전체 수출 중 대개도국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71%(2004년 1사분기 현재)에 도달.

2) 한국의 원조

- 우리나라 ODA는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자금으로 개도국 연수 생을 초청, 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부터 출발.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발족.
- 1990년대 들어 ODA공여가 본격적으로 확대 되었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달러 기준 연평균 17.7% 성장)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자(donor)로서의 책무를 요구받게 되었음.

3)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한국 ODA의 개혁과제

- ODA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ODA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ODA의 기본이념을 포괄하는 ODA 기본법 또는 헌장을 제정해야.

- 한국 ODA의 목적이 빈곤문제의 해결과 MDGs의 실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MDGs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ODA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 및 우선 과제를 수립하여야.

○ ODA 규모의 증대

- 국제사회는 원조국은 국내 총생산(GNI)의 0.7%를 정부 개발원조(ODA)에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목표는 북유럽 일부 국가가 달성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15년까지 달성하는 타임 테이블을 제출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은 아직 달성 공약을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04년 현재 0.06 %에 불과.

○ ODA의 질적 개선

- 무상원조에 비해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을 낮춰야
-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구속성화,
- 최빈국(LDC)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에 대한 원조 증대,
- 기초적 사회 서비스 분야(기초 교육, 기초 의료, 영양, 안전한 음료수 및 공중위생)에 대한 원조 집중이 필요.

○ OECD/DAC 가입

- 한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OECD/DAC에 가입하여야.

○ ODA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파트너십 강화,

○ 수혜국의 주체성(ownership) 확대

[별첨 3. 해외봉사 활동]

1. 국제 발룬티어 활동의 역사

1) Peace Corps의 창립

- 해외봉사단은 1960년, 당시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John F. Kennedy가 미시간대학교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시작되었음.
 - Kennedy는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조국에 봉사할 것을 촉구.

- Kennedy가 1961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세계의 평화와 우의 촉진을 위해 Peace Corps라는 연방정부의 기구를 창설.

- 창설 이래 190,000명 이상의 봉사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

- Peace Corps는 창립 이래 이해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미국인이 수혜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수혜자들의 미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2) 한국 정부의 국제 발룬티어 활동

- 한국에서는 1990년에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에 해외봉사단 총 44명을 파견한 것이 그 시작.

○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과 함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되어 매년 파견 대상국 및 파견 인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KOICA 봉사단 사업의 목적

- 당초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부문 전문 인력 양성과 대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생층에 대한 건전한 국가관 진작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여 대개도국 경제 진출을 위한 기반을 신장하는 것”
- 현재는 “협력대상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해당 국가와의 우호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며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실천적 참여를 하는 것”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역사

○ 한국의 민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KCOC, 이하 해원협)²²⁾에 가입된 개발 NGO²³⁾를 중심으로 독자적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그 동안 개발NGO에 대한 프로젝트사업만을 진행하여 오던 중 개발NGO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봉사사업 프로그램 부재로 NGO단체 및 일반국민들이 폭 넓은 봉사사업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KOICA 지원을 받는 NGO단체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인력이 부재한 결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 아래 KOICA-NGO 봉사단 파견제도를 도입.

○ KOICA-NGO 봉사단 파견제도는 NGO 봉사단 선발, 파견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KCOC)에 위탁하는 협정을 한국해외원단체협의회와 체결하고 KOICA가 지원하는 NGO 프로젝트사업 현장에 KOICA-NGO 봉사단을 파견.

- KOICA가 지원하는 NGO의 여타 협력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을 연계하여 대 개도국 협력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즉 정부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며
- 일반국민 및 개발 NGO의 ODA 사업 참여욕구에 부응하는 국민참여형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 바탕에서 시작되었음.

2.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현황

1) 규모

○ KOICA-NGO 봉사단 파견사업은 2004년 33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9개국의 한국 개발 NGO 8개 단체의 현지 사업장에 파견한 것이 그 시작.

○ 2005년에는 8개국 9개 단체사업장에 35명의 단원을 파견

○ 2006년에는 명칭을 ‘KOICA-NGO 봉사단’에서 ‘한국 NGO 해외봉사단’으로 바꾸어 20개국의 18개 단체사업장에 80명, 2007년에는 32개 국가 30개 단체사업장에 188명을 파견.

2) 파견경비

- 파견단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비(항공료, 현지생활비, 주거비, 프로젝트비)와 국내훈련비, 사업평가 및 홍보비 등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KOICA에서 지원
 - KOICA 파견단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약 62% 수준으로 지급.

22) 1999년에 설립된 한국개발 NGO의 umbrella 조직으로서 현재 60여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network 사업(회원 단체에 정보, 경험, 지식, 기술, 교육 program을 제공하고 외국 개발 NGO 및 개발 NGO의 협의체, 국제조직과 연대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정책제언 및 홍보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23) 개발도상국에 대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비영리 조직을 말한다.

○ 경비와 숫자

- 2007년 까지는 파견경비를 줄임으로써 파견 인원을 늘리자는 방침이 기초를 이루었음.
- 2008년부터는 파견 단원에게 최소한의 생존근거를 보장하고 질 높은 단원을 선발하기 위해 KOICA 봉사단 지급 경비 대비 80% 수준으로 파견 경비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맞춰 총파견 인원의 수를 조정.

3) 선발 및 교육

○ 초기의 방식

- 2007년에는 파견 NGO에서 단원을 선발하고 해원협은 건강부적격자 등에 한하여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식.

○ 객관적 선발

- 2008년부터는 선발과정에 대해 전체 파견단체와 전국민이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선발을 위해
- 파견 단체에서 선발된 후보단원을 대상으로 해원협 사무처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하도록 방침을 전환.

○ 교육

- 파견 전 국내교육 : 해원협에서 1주, 파견단체에서 2주 동안 진행
- 파견 후 교육 : 파견단체의 현지지부에서 현지 적응교육.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

- 한국 NGO 해외봉사단은 봉사활동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적극적인 활동태도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기부여와 소속 NGO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근거하여 개도국 오지에서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 KOICA 봉사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유연성과 현지 사회와의 밀착성 및 적응능력에서 두드러짐.

2)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의 한계

- 정체성 문제
- 훈련
- 단원관리
- 귀국단원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3) 한국 민간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한 평가

○ 목표달성도

- 봉사단원이 개도국에 파견되어 현지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수원국의 빈곤완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기본 목표는 달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봉사단원의 기술, 지식, 경험의 이전은 현장참여형, 교육지도형, 연구사무형, 연계 업무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술 이전 현황 역시 높음.
- 봉사당원의 전문성, 적응력, 적극성 등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지 관습에 대한 이해도, 현지인에 대한 편견, 현지어에 대한 구사능력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타당성과 효율성

- 사업의 타당성 즉 현지인과 현지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여 활동하고 있느냐 여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수록 증대하는 수요에 비해 충족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파견국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하라사막 이남의 절대빈곤 지역에 대한 더 많은 파견이 요구됨.
- 수도나 대도시 보다 오지에 배치되어 있어 빈곤퇴치를 위한 헌신성이 두드러지나 간혹 신변상의 안전과 주거, 식사의 어려움, 질병발생시의 대처의 곤란함, 심리적인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 파견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어나 태권도교육과 같은 부분에서 벗어나 현지 실정에 걸맞는 빈곤퇴치사업의 성공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 특히 농업 축산분야 등의 전문기술 인력을 발굴 파견하는 데 대한 필요가 높음.

○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도가 높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견단원의 파견기간이 짧으므로(2006년에는 6개월, 2007년에는 1년) 파견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야.
- 귀국단원과 차기파견단원의 파견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예컨대 2006년 12월 귀국, 2007년 4월 파견) 현지 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
- 귀국단원이 그 경험을 한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커다란 문제.

참고자료

충청남도 투자통상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09년 9월
성태규 외,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6년 10월
박용래,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7년 2월

통상지원분야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박종찬

1. 통상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

1) 통상지원의 필요성

-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대비 수출+수입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가 높은 편이고,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그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음